

빅리그서 성사된 'Kim의 격돌'... 김하성 판정승·김광현 첫 패

김하성 밀어내기 불넷에 김광현 강판
샌디에이고, 세인트루이스에 5-3 승

빅리거 신분이 된 후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첫 만남에서는 '동생' 김하성이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광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선발 출전했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의 7번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라인업에 들면서 두 선수의 미국 무대 첫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광현은 3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김하성을 마주했다. 초구는 볼. 2구째 낮은 슬라이더에 김하성의 방향이 날카롭게 돌아갔다. 멀리 뻗어나간 타구는 외야 좌측 파울 라인을 살짝 벗어났다.

김광현은 안도의 한숨을, 김하성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승부는 풀카운트로 이어졌다. 김하성은 3B-2S에서 두 차례 커트로 형 김광현을 끈질기게 물어늘어졌다. 8구까지 계속된 혈투에서 웃은 이는 김광현이었다. 김광현은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김하성의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만남은 더욱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광현이 2-1로 쫓긴 4회 1사 만루에서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김하성이 웃었다. 제구가 흔들리던 김광현을 상대로 밀어내기 불넷을 골라냈다. 김하성은 2B-2S에서 김광현의 승부구 2개에 모두 반응하지 않았다. 스코어는 2-2.

김하성과의 승부를 끝으로 김광현은 마운드를 내려갔다. 김하성을 범타

로 요리했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돌아선 김하성은 4회 밀어내기 타점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두 선수는 KBO리그 시절에도 SK 와이번스(SSG 전신)와 키움 히어로즈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자주 부딪혔다. KBO리그 성적은 타율 0.333(30타수 10안타), 4타점으로 김하성이 조금 우위를 보였다.

김광현을 끌어내린 김하성은 6회 선두타자로 나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8회에는 방망이가 아닌 눈과 발로 팀에 기여했다. 또 한 번 선두타자로 선 김하성은 바뀐 투수 알렉스 레예스에게 불넷을 얻어냈다. 풀카운트에서 낮은 코스로 향하는 빠른 공을 잡아냈다.

존 안드레올리 타석에서는 2루를 훔쳤다. 세인트루이스 포수 아디어 몰리나가 빠르게 송구했지만 김하성의 슬라이딩이 좀 더 빨랐다. 시즌 3호 도루.



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회 수비하고 있다. 김하성은 3회 말 공격에서 김광현에게 삼진당했다.

2타수 무안타 2볼넷 1도루를 기록한 김하성의 타율은 0.195에서 0.190(84타수 16안타)으로 하락했다. 로 꺾고 시리즈 3연전을 싸웠던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5-3로 누르

'79전80기' 이경훈 "첫 우승 믿기지 않아"

8번째 PGA 한국인... "투어 챔피언십 목표"



이경훈이 16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매기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 이런 벨스 18번 그린에서 우승컵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경훈은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로 샘 번스(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PGA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경훈(30)이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이경훈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기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 이런 벨스(총상금 81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2개를 쳐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전날 2위였던 이경훈은 마지막 날 선전을 펼쳐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를 기록,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 2월 피닉스 오픈에서 거둔 준우승의 아쉬움을 약 3개월 만에 씻어냈다.

PGA 투어 80번째 대회 도전만에 이뤄낸 감격스런 첫 우승이다. 우승상금으로 145만8000달러(한화 약 16억 5000만원)를 받는다.

이경훈은 우승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 남자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기여한 이경훈은 2011년 일본투어 큐스쿨을 수석 합격했다. 일본 무대에서 2승을 수확했다.

2015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이경훈은 첫해 상금왕을 차지했고, 2015, 2016년 한국오픈 2연패를 달성했다.

아시아 무대는 이경훈에게 좁았다. 2016년부터 PGA 2부 투어에 도전장을 던진 이경훈은 2018-2019시즌부터 PGA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했다. 쟁쟁한 선수들 속에서 우승은 신기루 같았지만, 80차례의 도전 끝에 꿈을 이뤘다.

이경훈은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 김시우, 강성훈, 임성재에 이어 8번째 한국선수 PGA 우승자로 역사에 남았다.

이경훈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승이고, 지금도 정말 믿기지 않는다. 진짜 믿기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PGA와 이경훈의 일문 일답

-첫 우승에 대한 소감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승이고, 지금도 정말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도움을 줬던 가족 등 한 분 한 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 진짜 믿기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승의 원동력은.

"이번 주에 아이언도 잘됐고, 티샷도 잘됐다. 몇 달 동안 퍼트가 잘 안 됐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퍼터를 바꿨다. 원래는 말렛 형을 쓰다가, 이제 캘러웨이 일자 앤서 타입으로 바꿨는데, 그게 너무 잘돼서 우승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피닉스 오픈에서 준우승 경험을 했던 것이, 이번 주 우승 경쟁에 도움이 됐다.

"피닉스 오픈 때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때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기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번 주도 계속 내 플레이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렸다."

-다음주 PGA 챔피언십과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을 얻었는데, 기분이 어떨까.

"믿을 수가 없다. 다음 주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등 메이저 대회에 너무 참가하고 싶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니, 메이저에 나가서 또 경험을 쌓고, 계속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다."

-현재 투어에 강성훈, 임성재, 김시우 등 동료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동료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다.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서로 자극이 되기도 한다.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린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한국은 새벽 시간일 텐데,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CJ, JDX, 캘러웨이 등 모든 스폰서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릴 분이 많은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팬, 가족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즌 말 투어 챔피언십에 갈 수 있는 순위까지 올라갔는데, 남은 시즌 목표는.

"당연히 목표는 투어 챔피언십까지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에 놓인 대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즌을 잘 마치고 나면, 3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뉴시스

수영 황선우, 자유형 200m 또 세계주니어新 갈아 치웠다

"올림픽 메달 꿈 아냐"

남자 수영 자유형 100m 신기록과 함께 생애 첫 올림픽 진출을 확정된 황선우(18·서울체고)가 200m 자유형에선 자신이 세웠던 세계주니어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림픽 출전권도 추가했다.

황선우는 16일 제주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1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396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세계주니어신기록이다.

지난해 11월 본인이 세운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주니어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한 것이다. 황선우는 6개월 전, 기록한 1분45초92에서 0.96초를

단축했다.

황선우는 전날 100m에서 48초04의 한국 신기록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데 이어 200m 출전권도 얻었다.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내 기록만 경신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44초대 기록이 나와서 무척 놀랐다. 44초대 기록에 들어가면서 올림픽 메달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가능한 메달이 된 것 같다"며 "올림픽에선 준비한 만큼 다 보여주고 오고 싶다"고 했다.

손흥민, 패스·수비 집중 팀 승리 이끌어...평점 7.1점

올버햄튼전 선발 출전 풀타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패스와 수비 가담에 집중하며 팀 승리를 도왔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올버햄튼과의 2020~2021 EPL 36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공격포인트는 없었지만 패스와 수비로 토트넘의 2-0 승리에 일조했다.

전반 38분 위협적인 슈팅이 있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그러나 후반 17분 호이비에르의 추가골이 나오는 과정에서 시발점이 되는 패스를 선보였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1점을 부여했다.

선제골의 주인공 해리 케인이 9.1점으로 가장 높았고, 1골 1도움의 호이비에르가 9점으로 뒤를 이었다.

영국 언론 '풋볼러'는 "전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다. 열심히 뛰며



토트넘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올버햄튼과의 2020~2021 EPL 36라운드에서 해리 케인,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다.

수비에서 레길론을 도왔지만 공격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줬다.

17승(8무11패 승점 59)을 신고한 토트넘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승점

59)를 따돌리고 6위로 올라섰다. 웨스트햄과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이 +22로 웨스트햄(+10)보다 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지소연, 여자 챔스리그 준우승...첼시, 바르사에 0-4 완패

지소연(30)이 선발로 출전한 첼시 위민(잉글랜드)이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UWCL) 우승에 실패했다.

첼시는 17일(한국시간) 스웨덴의 예테보리의 고텐부르크 스타디움서 치러진 FC바르셀로나 페메니

(스페인)와의 2020~2021시즌 대회 결승에서 0-4로 완패했다. 지소연은 이날 선발로 나와 후반 27분 에린 커스버트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창단 첫 유럽 제패를 노렸던 첼시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와 리그컵에서 우승해 '더블(2관왕)'에 성공한 첼시는 여자 챔피언스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까지 4개 대회 우승을 노렸으나, 일단 '쿼드러플(4관왕)'은 좌절됐다.